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25개 구를 중심으로

Child-Care Infrastructures and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 Parents with Young Children in 25 Provinces in Seou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유재언\*\*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부교수 진미정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er : Yoo, Jae-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Chin, Meejung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community policy and child care policy o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Particularly, two specific questions were addressed: 1) Were th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amo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in Seoul provinces? 2) Were th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amo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depending on child-care infrastructures in Seoul provinces?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multiple sources. Individual-level indicators were drawn from the survey of 1,246 parents with children under age 6 in Seoul. Community-level indicators were drawn from the 2011 Seoul census data.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GIS mapping,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by individual, child-care infrastructures, and the community at large.

The major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The perception of parents on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varied across the 25 provinces in Seoul.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total number of child day-care centers, and the number of infant-toddler child daycare centers. The number of accredited child daycare center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주요어(Key Words) : 가족친화 지역사회(family-friendly community), 보육서비스 인프라(child-care infrastructure), 영유아기 가정(early childhood family), 어린이집(child day-care center), 유치원(kindergarten)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이며,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FR-2011-413-20110028)

\*\* 주저자 · 교신저자 : 유재언 (E-mail : jjagjjag@naver.com)

## I. 문제제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족친화 사회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가족 돌봄을 분담하는 시설과 공간이 갖춰진 지역 사회 환경을 ‘가족친화 사회환경’ 또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라고 정의한다. 가족 돌봄을 분담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나 공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서비스 정책에서 다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서비스 정책이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간주되어 인프라와 예산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2011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인프라 소요예산은 9,168억 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11). 서울시의 경우 동별로 최소 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발표(2012년 2월 16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차 대상지에 309억 원 지원(2012년 3월 22일), 2013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심의 의결(2012년 10월 22일) 등 보육서비스 인프라와 관련된 각종 정책안을 내놓고 있다(NEW1, 2012년 10월 28일자).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그쳤고, 특히 서울시는 1.01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11).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조급하게 나올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주변에 보육시설이 많을 때 그 지역사회를 가족이 생활하기 좋다고 느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겨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수요자인 부모들 입장에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이 보육서비스 인프라와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갖추어졌을 때 가족친화적이라고 느끼는지 알아보려 한다. 지역사회 가족친화성과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상관관계는 부모 개인이나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보육서비스 인프라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의 관련성이 여전히 유의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친화적인 마을만들기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역사회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를 찾아 모형을 제안하거나,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성요소를 찾는데 관심을 가져 왔다(홍승아 등, 2007; 김혜영 등, 2009; 진미정, 2010; Swisher,

Sweet, & Moen, 2004; Park et al., 2009; Cha & Lee, 201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나 서비스 인프라의 영향력이 지역주민의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도 하였다(Sweet, Swisher, & Moen, 2005; Park, 2010; Cha & Lee, 2011; Noh & Chin,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 한 사회서비스가 부모들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을 높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Noh & Chin, 2012), 지역주민들의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Park, 2010).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등 지역사회의 특성이 지역사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역사회마다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다르다고 알려졌다(Chaskin, 1997; Leventhal & Brooks-Gunn., 2000; Garcia, Aisenberg, & Harachi, 2012). 특히 가족친화적 서비스 인프라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환경친화적이며,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홍승아 등, 2007; 김혜영 등, 2009; Park, 2010; Cha & Lee, 2011).

한편,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사회마다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Roberts et al., 2004),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따라 지역주민의 출산율 등이 어떠한지 연구하였다(Francis & Castles, 2003).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연구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유형별로 만족도가 어떠한지 살펴본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정책 및 보육서비스 정책수요자들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논의한 후, 이를 채우고 보완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구성요소와 지역주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되지 않았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가족친화 구성요소만을 찾아내거나(김혜영 등, 2009; Francis & Castles, 2003; Park et al, 2009) 반대로 지역주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만을 측정하였다(Swisher, Sweet, & Moen, 2004; Sweet, Swisher, & Moen, 2005; Park, 2010; Cha & Lee, 2011; Noh & Chin, 2012). 이 둘의 관련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기반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바람직하지만, 아직 객관적인 구성요소와 지역주민의 주관적인 인식 간의 관련성이 실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자녀를 맡기는 개별 보육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

수준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분석한 경우는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과 서문희 등(2009b)의 연구가 있었지만 국가나 개인단위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보육서비스 인프라와 출산의 관련성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전체 어린이집수, 국공립 어린이집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전체 유치원수, 공립 유치원수로 세분화하여 보육서비스 인프라 유형별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선행연구들은 연구지역, 연구대상, 지역사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홍승아 등(2009)은 서울시 한 지자체 전생애주기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고, Park(2010)은 서울시, 경기도, 충북, 경남 지방도시의 유아녀 기혼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Cha and Lee(2011)에서는 대전시 아파트 거주자로 연구지역과 연구대상을 정하였다. 하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의 차이가 크다(김혜영 등, 2009). Swisher, Sweet, and Moen (2004)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연령과 생애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들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자녀가 영유아인 시기에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범위 규정에 대해서도 마을, 동네, (근린)지역 등 지리적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지리적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더라도 연구에 따라 그 범위가 동과 구로 달랐다. 지역사회 범위를 명확하게 조작적 정의하지 않으면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저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위를 '구'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도시화 규모에 따라 영유아의 부모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Yoo and Chin(2012)의 연구 결과가 있어 연구지역은 대도시인 서울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보육서비스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영유아기 가정의 부모로 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은 서울시 구 별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연구동향

어떠한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인지 개인과 지역사회 요소를 규명하는 실증연구를 시작한 건 Swisher, Sweet, and Moen (2004)과 Sweet, Swisher, and Moen(2005)이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미국 뉴욕 주 주민들에게 실시한 설문자료를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지역사회역량, 개인 및 가구특성 등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시기와 맞물려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홍승아·김혜영·류연규(2007)는 지역사회의 철학, 서비스 인프라, 시민 참여와 네트워크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로 선정하고, 가족친화적 서비스 인프라가 가져야 할 원칙으로는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환경친화성을 제시하였다. 홍승아·김혜영·류연규(2007)는 서울시 은평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가족친화욕구와 지역사회 가족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지역의 아동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가 갖춰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 실태와 무관한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홍승아 등(2007)의 연구에서는 홍승아·김혜영·류연규(2007)의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체크리스트와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홍승아 등(2007)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질적 수준 유지, 그리고 정책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입장과 욕구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혜영 등(2009)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총 18개 지자체를 선정해 이 지역의 행정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자연환경이 어떠한지 전문가가 구성된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종합적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은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순으로 높았고, 돌봄서비스 인프라 영역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우수하였다. 김혜영 등(2009)의 연구를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도시화 규모에 따라 서비스 인프라 수준의 차이가 있고,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도시화 규모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한 연구에서 서로 다른 도

시화 규모의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Park et al.(2009)도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동부이촌동, 성남시 서현동, 군포시 공내동, 고양시 일산구의 생활가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김혜영 등(2009)과 Park et al.(2009)의 연구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구성요소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여 지역 비교를 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가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지역사회와 개인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다르게 인식하는지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Noh and Chin(2012)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영유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기혼 남녀 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 하여,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와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Park(2010)은 서울시와 지방도시의 기혼유자녀 부모 385명의 설문을 다중회귀분석 하여, 거주환경 만족도, 가족지원시설 만족도, 가족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환경 만족도, 생활정보 접근성이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역할만족도에는 거주환경 안전성, 거주환경 이웃과의 교류가 영향을 미쳤고, 역할긴장도에는 거주환경 안전성, 거주환경 근접성, 가족지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 and Lee(2011)는 대전시 아파트 거주자 4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다중회귀분석 하여, 가족친화마을의 관계환경, 기본적 거주환경, 전체 마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가족참여, 공동작업, 문화체육시설, 공동보육, 공동서비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Yoo and Chin(2012)의 연구에서도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에 따라 영유아의 부모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되는 지역사회 구성요소와 개인특성을 실증연구로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한 Swisher, Sweet, and Moen(2004)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지역수준 변수와 개인수준 변수의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단층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변수들을 그 지역의 객관적인 지표들로 측정하지 않고, 설문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 수준만으로 평가하였다.

## 2.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일상에서도 보편적으로 사

용되지 않고 아직 학문적으로도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아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개념 정의, 핵심 원칙,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개념 정의부터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홍승아 등(2007)의 연구 등에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란 돌봄을 분담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Park(2010), Noh and Chin(2012)도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규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란 돌봄을 분담하는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라는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Kim and Lee(2010)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적 마을만들기가 너무 돌봄 중심으로만 좁게 정의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Sweet, Swisher, and Moen(2005)도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돌봄뿐만 아니라 여가, 교육, 문화, 이웃, 쇼핑, 사회자본, 인프라, 안전 등 다양한 요소로 측정하였다. 학문적으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는 방향이 옳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과 관련 사업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 또한 보육서비스 인프라라는 정책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돌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추후에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측정도구 구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핵심 원칙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홍승아 등(2007), 김혜영 등(2009), Park et al.(2009), Park(2010)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가 가져야 할 핵심 원칙으로 안전, 환경, 생활편리성,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반면, Sweet, Swisher, and Moen(2005)과 Noh and Chin(2012)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정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측정도구는 홍승아 등(2007), 김혜영 등(2009), Park et al.(2009), Park(2010)이 제시한 안전, 환경, 생활편리성, 만족도와 Sweet, Swisher, and Moen(2005)과 Noh and Chin(2012)의 주관적 가족친화성 정도를 모두 포함시켰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위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들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크게 보면 사회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물리적·정책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관계성, 네트워크, 사회자본, 지역사회 역량, 집단효능감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용어도 지역사회 대신 동네, 마을, 이웃, (근린)지역, 공동체

등을 사용하고, 지역사회 범위도 좁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지역사회의 물리적·지리적 속성이나 정책·제도·행정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범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들도 지역사회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지만 설문 할 때 조사응답자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범위가 다른 경우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Noh and Chin(2012), Claudia, Jennings, and Chan(2012)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희연·노승철(2012)도 지리자료는 주거, 유동인구, 상권 등 분석하고자 하는 속성에 따라 상이한 공간패턴이 나타나고, 공간패턴은 행정구역과 별개의 범위를 가질 수도 있고 가변적이라고 하였다.

불명확한 지역사회 범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범위를 측정도구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 지역사회 범위를 행정구역인 서울시 '구'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지역사회 범위를 '구'로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범위를 '동'이나(Jung & Cho, 2011), 그 밖의 보육서비스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거주 패턴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Sampson, 2012). 그러나 Chaskin(1997)은 사회자본 등 관계성과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면 지역사회 범위를 좁게 규정하는 것이 좋으나, 제도 행정 정책 인프라에 관해서라면 지역사회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라고 하였다. 이 연구 또한 지역사회의 보육서비스 인프라라는 물리적 속성과 정책 및 제도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Yoo and Chin(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검증 해보고자 '구'와 '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두 모형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 3.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기관, 시설,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Singh et al.(1997), Barksdale et al.(2012), Finello and Poulsen(2012)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시설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약물남용, 폭력을 줄여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시설의 종사자, 프로그램, 접근성 등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와 정신건강과 같은 성과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Garcia, Aisenberg, and Harachi(2012)는 미국 워싱턴 주 지역의 사회복지사 17명을 심층 면접해서 제도, 시설,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가 라틴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복지 불평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미국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으로 상담, 보건,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연구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반면 호주 멜버른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학교까지의 등·하교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Timperio et al.(2006)나 필리핀, Nicaragu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니세프(UNICEF)가 운영하는 학교환경과 제도를 연구한 Godfrey et al.(2012)는 학교를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로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인프라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대상 서비스 인프라를 연구하는 경우 우리나라 서비스 인프라의 부각되는 특징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게는 여러 서비스 인프라 중에서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핵심적인 지역사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Noh and Chin(2012)과 Cha and Lee(2011)도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중에서 자녀 양육 또는 보육시설을 중요한 물리적 환경요소로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관리하는 중앙부처, 운영주체 등이 다양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보육서비스의 범위 규정을 다양하게 하였다. 보육서비스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보육서비스 범위를 어린이집으로 한정하였다. 반대로 보육서비스를 범위를 개인대리양육자까지 포함시켜 넓게 정의하는 연구도 있었다(Jun, 2011). 2012년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과정인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더불어 유치원을 본 연구의 보육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켰고, 지역사회의 인프라 조성을 측정하려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대리양육자는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크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두 전달체제로 나뉜다. 운영 주체에 따라서는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 3~5세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하여 다닐 수 있는데, 만 0~2세의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만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중에서는 만 0~2세의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있어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나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하여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만족도나 불만사항 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경우는 보육서비스를 지역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본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보육서비스 인프라 지표를 적용한 연구는 Roberts(2001), Francis and Castles(2003),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 서문희 등(2009b)이 있다.

Roberts(2001)는 미국 뉴저지 주 118개 지방정부의 가족

친화 혜택을 비교하여 지방정부마다 제공하는 가족친화 혜택의 종류, 대상자 수혜조건, 지원액 등이 다르고, 수혜자의 만족감과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의 합계출산율 추세와 가족친화 정책의 상관성을 분석한 Francis and Castles(2003)에서도 0~3세의 보육시설 이용률, 0~6세 보육시설 이용률, 3~6세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이 합계출산율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Roberts(2001)와 Francis and Castles(2003)의 연구를 통해 보육서비스 인프라 특성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의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과 서문희 등(2009b)의 연구가 보육서비스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가 출산율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분석 수준을 국가, 지역사회, 개인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로 단층회귀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은 육아서비스이용률, 국공립보육시설수, 재정자립도 모두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서문희 등(2009b)의 연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시·군·구 출산수준과 정적 관계이고,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율과 유아교육·보육 정원율은 시·군·구 출산수준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과 서문희 등(2009b)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국가수준과 개인수준 분석 결과와 달리 출산에 대해서 정책 효과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시에 거주하며 영유아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2012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유아를 둔 부모 30명에게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에서는 설문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주요 측정도구의 응답분포를 점검하였다.

본 조사는 전문 리서치 회사에게 의뢰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리서치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패널 중 '서울시에 거주하며 영유아를 1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패널을 무작위추출하고, 2012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패널에게 자동메일발송 프로그램으로 설문 메일을 보냈다. 설문 메일 회수는 2012년 5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최종적인 자료 분석은 설문에 응답한 1,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 변수와 측정도구

이 연구의 최종모형에 포함된 변수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전체 어린이집수, 국공립 어린이집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전체 유치원수, 공립 유치원수, 재정자립도, 0~6세 인구수, 응답자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위계선형모형분석에서

Table 1. Variables and Resources included in the HLM Model

Categories	Variables	Resources	Level	Centering
Dependent Variable	Community family- friendliness	a Questionnaire Survey	Level 1	-
Independent Variable	Total number of child day-care centers(Z)	Reliable Child-care Centers in Seoul ( <a href="http://seoul.childcare.org.kr">http://seoul.childcare.org.kr</a> )	Level 2	Grand
	Number of public child day-care centers			
	Number of Infant-toddler child day-care centers			
	Child day-care centers under an accreditation system			
Control Variable	Total number of kindergarten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a href="http://www.sen.go.kr">http://www.sen.go.kr</a> )	Level 2	Grand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s			
	Local finance independency			
	Population aged 0-6 years			
Control Variable	Gender	a Questionnaire Survey	Level 1	-
	Age			Group
	Educational level			-
	Monthly income(log)			Group

사용된 각 변수들의 수준과 중심보정 방법, 자료원은 <Table 1>에 제시되어있다.

1)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측정도구는 5문항이고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내가 살고 있는 ‘구’는 구는 아이 키우기에 안전하다”, “내가 살고 있는 ‘구’는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구’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내가 살고 있는 ‘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현재 만족한다”, “내가 살고 있는 ‘구’는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의 다섯 문항은 각각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 생활편리성, 만족도, 주관적인 가족친화성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에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 각 문항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알려주는 Cronbach’s  $\alpha$ 값은 .93이었다. 위계선형모형에서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5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2) 보육서비스 인프라

독립변수인 서울시 구 별 보육서비스 인프라는 전체 어린이집수, 국공립 어린이집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전체 유치원수, 공립 유치원수이다.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영아전담, 평가인증 수준으로 세분화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육서비스 인프라 특성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되는지 파악하고, 보육서비스 인프라 특성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보육서비스 인프라 변수 중 전체 어린이집수, 국공립 어린이집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 평가인증 어린이집수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http://seoul.childcare.org.kr>)의 2011년 11월 19일 현황을 연구자가 직접 코딩하여 자료로 만들었다. 전체 유치원수와 공립 유치원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http://www.sen.go.kr>)이 제공하는 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선, 서울시 구 별 전체 어린이집수는 위계선형모형에서 지역수준인 2수준에 독립변수로 포함시켰으며, 전체평균으로 중심보정 하였다. 전체 어린이집 수는 0~6세 인구수, 재정자주도와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표준점수 Z로 변환하였다. 위계선형모형에 포함된 2수준의 변수들만으로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과의 분산팽창계수(VIF)를 구한 결과, 분산팽창계수 평균값은 3.69이고 전체 어린이집수 변수의 분산팽창계수는 8.35였다. 김두섭·강남준(2008)에 따르면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포함된 2수준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전체 유치원수, 공립 유치원수는 위계선형모형에 지역수준인 2수준의 독립변수로 포함시켰고, 전체평균 중심보정 하였다. 전체 어린이집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사회 변수들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재정자주도와 0~6세 인구수

서울시 구 별 경제수준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위계선형모형에서 재정자주도를 전체평균 중심보정 하여 2수준의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예산 사용 재량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구 별로 차이가 나는 인구수와 인구구성 비율을 통제하기 위해 구 별 0~6세 인구수를 위계선형모형에 2수준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재정자주도와 0~6세 인구수는 서울통계연보(<http://stat.seoul.go.kr>)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전체평균 중심보정 하였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설문에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위계선형모형에서는 0으로 코딩한 ‘남성’이 기준집단이 되고, 1로 코딩한 ‘여성’은 비교집단이다. 위계선형모형에서 성별은 개인속성이라 1수준에 포함시켰고, 가변수라 중심보정은 하지 않았다.

설문에서 연령은 응답자가 자신의 만 연령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분석에서는 응답자가 입력한 만 연령 숫자를 변경하지 않았고,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위계선형모형에서 개인속성인 연령은 1수준에 포함시켰으며, 집단평균으로 중심보정 하였다.

설문에서 학력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의 5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을 위해 응답자가 적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를 ‘대학교 중퇴 이하’의 집단으로 묶었다. ‘대학교 중퇴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의 세 집단으로 재분류된 학력 집단은 가변수로 만들고 ‘대학교 졸업’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대학교 중퇴 이하’와 ‘대학원 이상’의 집단은 ‘대학교 졸업’ 집단과 비교하였다. 위계선형모형에서 학력은 개인속성인 1수준에 포함시켰고, 가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심보정은 하지 않았다.

설문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은 응답자가 만원단위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월 평균 가구소득은 응답자가 입력한 만원 단위 금액을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위계선형모형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은 개인속성인 1수준에 포함시켰으며, 자연로그값으로 바꾸었다라도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집단평균 중심보정 하였다.

### 3. 자료 분석 및 연구모형

#### 1)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특성,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구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특성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체계(GIS)의 지도화(mapping) 기법을 수행하였다. 지도화를 할 때, 급간 분류방법은 등급의 색상이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최적화된 표현을 해주는 Natural break 방법을 선택하였다(김남신, 2005; p146). 셋째, 위계선형모형(HLM)을 통해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코딩된 자료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공하고, 기술통계와 분산팽창계수(VIF),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구하는 자료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은 STATA 12.0을 이용하였다. 지리정보체계 지도화는 ArcGIS 9.3과 Quantum GIS 1.7.3을 이용하였다. 위계선형모형 분석은 HLM 6.06을 사용하였다. STATA 12.0의 자료를 지리정보체계 자료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이용하고, STATA 12.0의 자료를 HLM 6.06 자료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PASW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 2)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는 2수준인 지역사회수준의 요인이고, 영유아를 둔 부모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은 1수준인 개인수준에서 측정되어 자료가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계적 구조의 자료에서는 상위 집단에 속한 하위 수준의 단위들이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상위 집단과 영향을 주고받는다(Raudenbush & Bryk, 2002). 또한 서울시는 구마다 경제수준, 인구구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구의 지역주민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회귀분석이나 분산분석 등 단층구조로 분석하게 되면, 각 표본들과 오차항들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회귀모형의 가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표준오차가

작게 추정되는 결과가 나온다(이희연 · 노승철, 2012; p424-448). 일반선형모형에서의 정상분포나 동분산 가정과 달리, 분석단위의 독립성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설검정의 타당성은 심각하게 위협 받는다(이재열 등, 2005). 위계선형모형에서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이 하나의 오차항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과 달리 측정수준에 따라 여러 개의 오차항을 가지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회귀모형의 가정 위배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이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 중 무제약모형과 임의절편모형 분석을 상향식으로 수행하였다. 나중 단계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 단계의 모형부터 순차적인 분석을 수행해 전 단계의 분석결과가 이후 단계의 모형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충족될 경우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각 연구모형을 상향식으로 실행하는 과정과 수식을 살펴보겠다.

<Formula 1> model 1 : 무제약모형(일원분산 모형)

$$\text{개인수준 모형: } Y_{ij} = \beta_{0j} + r_{ij}, r_{ij} \sim N(0, \sigma^2)$$

$$\text{지역수준 모형: } \beta_{0j} = \gamma_{00} + \mu_{0j}, \mu_{0j} \sim N(0, \tau_{00})$$

<Formula 2> model 2 : 개인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

$$\text{개인수준 모형: }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연령}) + \beta_{3j}(\text{대학교 중퇴 이하}) + \beta_{4j}(\text{대학원 이상}) + \beta_{5j}(\text{월 평균 가구소득 로그값}) + r_{ij}, r_{ij} \sim N(0, \sigma^2)$$

$$\text{지역수준 모형: } \beta_{0j} = \gamma_{00} + \mu_{0j}, \beta_{qj} = \gamma_{q0} (q=1,2,3,4,5)$$

<Formula 3> model 3 :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의 재정자주도, 0~6세 인구수를 통제한 후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투입한 모형

$$\text{개인수준 모형: }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연령}) + \beta_{3j}(\text{대학교 중퇴 이하}) + \beta_{4j}(\text{대학원 이상}) + \beta_{5j}(\text{월 평균 가구소득 로그값}) + r_{ij}, r_{ij} \sim N(0, \sigma^2)$$

$$\text{지역수준 모형: }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전체 어린이집수}) + \gamma_{02}(\text{국공립 어린이집수}) + \gamma_{03}(\text{영아전담 어린이집수}) + \gamma_{04}(\text{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gamma_{05}(\text{전체 유치원수}) + \gamma_{06}(\text{공립 유치원수}) + \gamma_{07}(\text{재정자주도}) + \gamma_{08}(\text{0~6세 인구수}) + \mu_{0j}, \mu_{0j} \sim N(0, \tau)$$

$$\beta_{qj} = \gamma_{q0} (q=1, 2, 3, 4, 5)$$

$Y_{ij}$ =개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점수,  $\beta_{0j}$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의 조정된 평균점수,  $\gamma_{00}$ =지역사회 전체 평균,  $r_{ij}$ =개인들 간의 분산,  $\mu_{0j}$ =지역사회들 간의 분산,  $\gamma_{10} \sim \gamma_{50}$  = 지역수준의 평균 회귀계수,  $i$ =개인,  $j$ =지역사회

우선, 개인과 지역사회의 다른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의 분산 분포를 model 1 무제약모형으로 분석한다. 무제약모형을 통해 지역사회수준의 분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246)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S.D.)	Min.	Max.
Gender	Male	611 (49.0)	-	-	-
	Female	635 (51.0)			
Age	20s	162 (13.0)	34.6 (4.4)	20	47
	30s	903 (72.5)			
	40s	181 (14.5)			
Educational Level	Under College Graduate	168 (13.5)	-	-	-
	College Graduate	915 (73.4)			
	Post College	163 (13.1)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10,000 won)	Under 200	31 ( 2.5)	444.4 (193.4)	0	2500
	200 - 399	457 (36.7)			
	400 - 599	504 (40.5)			
	600 - 799	179 (14.4)			
	Over 800	75 ( 6.0)			

산 정도를 파악하고,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다(Gelman & Hill, 2007). 무제약모형 수식이 <Formula 1>이다. 무제약모형에서 지역사회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지역사회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중이 일정 부분 있는 경우,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사회수준 변수를 모형에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개인수준 변수만 포함시킨 model 2의 수식이 <Formula 2>다. model 2에서 개인수준의 변수를 포함시킨 이후, model 3에서는 개인수준 변수와 더불어 지역사회수준의 변수까지 투입한다. model 3을 통해 개인수준 변수와 일부 지역수준 변수를 통제시켰을 때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수 있고,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의 전체 지역사회수준 분산 중에서 모형에 포함된 지역사회수준 변수들이 어느 정도 분산을 설명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model 3의 수식은 <Formula 3>다. 이 연구모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및 연구지역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보육서비스 인프라와 가족친화성 인식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설문문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1,246

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을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성별은 남성(49.0%)과 여성(51.0%)이 거의 반씩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연령대는 30대가 72.5%로 대부분이었고, 20대(13.0%)와 40대(14.5%)는 각각 약 15%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6세(S.D.=4.4)였다. 셋째, 학력은 조사대상자의 3/4 정도가 대학교 졸업이었고, 대학교 중퇴 이하와 대학원 이상 학력이 약 13% 정도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은 400만 원 이상에서 6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40.5%), 2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6.7%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1/5 정도가 월 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이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5%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 평균금액은 444만원(S.D.=193.4)이었다.

표집 된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과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서문희 등(2009a)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문희 등(2009a)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321만 원 이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의 부모 학력 비중은 대학교 졸업이 50% 정도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중퇴 이하가 약 40%, 대학원 이상은 10% 미만이었다. 서문희 등(2009a)의 연구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교를 하기는 용이하나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에 관한 정보라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ommunity Level Variables

Variables (N=25)	Mean	S.D.	Min.	Max.
Total number of child day-care centers(Z)	241.6	104.0	52	521
Number of public child day-care centers	26.1	6.7	14	37
Number of infant-toddler child day-care centers	2.3	1.3	0	5
Child day-care centers under an accreditation system	160.4	75.6	43	391
Total number of kindergartens	36.0	14.4	19	72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s	5.3	3.3	2	12
Local finance independency	71.0	7.4	58.4	84.4
Population aged 0-6 years	23,528	8,417	6,598	40,893

서울시의 영유아기 부모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문희 등(2009a)의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120만 원 정도 많고, 학력도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이상의 비중이 각각 20%p, 7%p 정도 높다. 연구결과를 모집단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때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고소득, 고학력으로 과대표집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 연구지역 특성

위계선형모형에 포함된 지역사회 특성인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 재정자주도, 0~6세 인구수는 <Table 3>와 <Figure 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Table 3>를 보면, 서울시 25개 구의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 재정자주도, 0~6세 인구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알 수 있다.

<Table 3>에서 전반적인 지역사회 특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보이며, 지역사회 특성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구마다 보육서비스 인프라, 재정자주도, 0~6세 인구수 분포가 어떠한지 <Figure 1>을 통해 제시하였다.

a)부터 f)까지 6장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 그림마다 농도의 패턴이 한 장도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림을 한 장씩 보더라도 알록달록한 색깔로 구분된 층위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부터 f)까지 6장 그림의 패턴이 상이한 것은 전체 어린이집수, 국공립 어린이집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전체 유치원수, 공립 유치원수 등의 보육서비스 인프라 수준이 구마다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구로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수는 가장 많은 집단에 속하지만, 영아전담 어린이집수는 가장 적은 집단에 해당하였다. 중랑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수가 가장 많은 집단에 속하지만, 공립 유치원수는 적은 집단에 속한다. a)부터 f)까지 그림을 한 장씩 봤을 때도 한 그림 내에서 층위가 있는 건 위계선형모형에서의

지역수준 설명변수 분포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의미한다. 인접한 지역끼리 유사한 수준으로 군집화된 모습도 나타난다.

그림 g)와 h)는 위계선형모형에서 지역수준 통제변수로 포함된 재정자주도와 0~6세 인구수,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의 구 별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어린이집수인 그림 a)와 g)의 0~6세 인구수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지리적으로 서울 외곽지역인 노원구, 강서구, 송파구 등 0~6세 인구수가 많은 구에 전체 어린이집수도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중심부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와 중구 등은 0~6세 인구수가 적은 구는 전체 어린이집수도 적었다. 서울시 구별 또는 외곽지역과 중심지역의 주거지 특성이 거주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에 따라 0~6세 인구수와 전체 어린이집수의 분포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1>을 통해서 지역사회 수준 보육서비스 인프라, 재정자주도, 0~6세 인구수의 가시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그림만으로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어떤 지역사회 변수들과 관련성이 높은지 찾아내기 어려워 위계선형모형으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지역사회 수준 변수들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 2.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차이

### 1) 지역사회에 따른 가족친화성 인식 차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설명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무제약모형으로 지역사회 간에 가족친화성 인식의 평균 차이 여부와 그 비율을 확인하였다. 무제약모형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통계량은 2수준 집단 간 이분산성을 고려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사용한 추정방법으로 구한 값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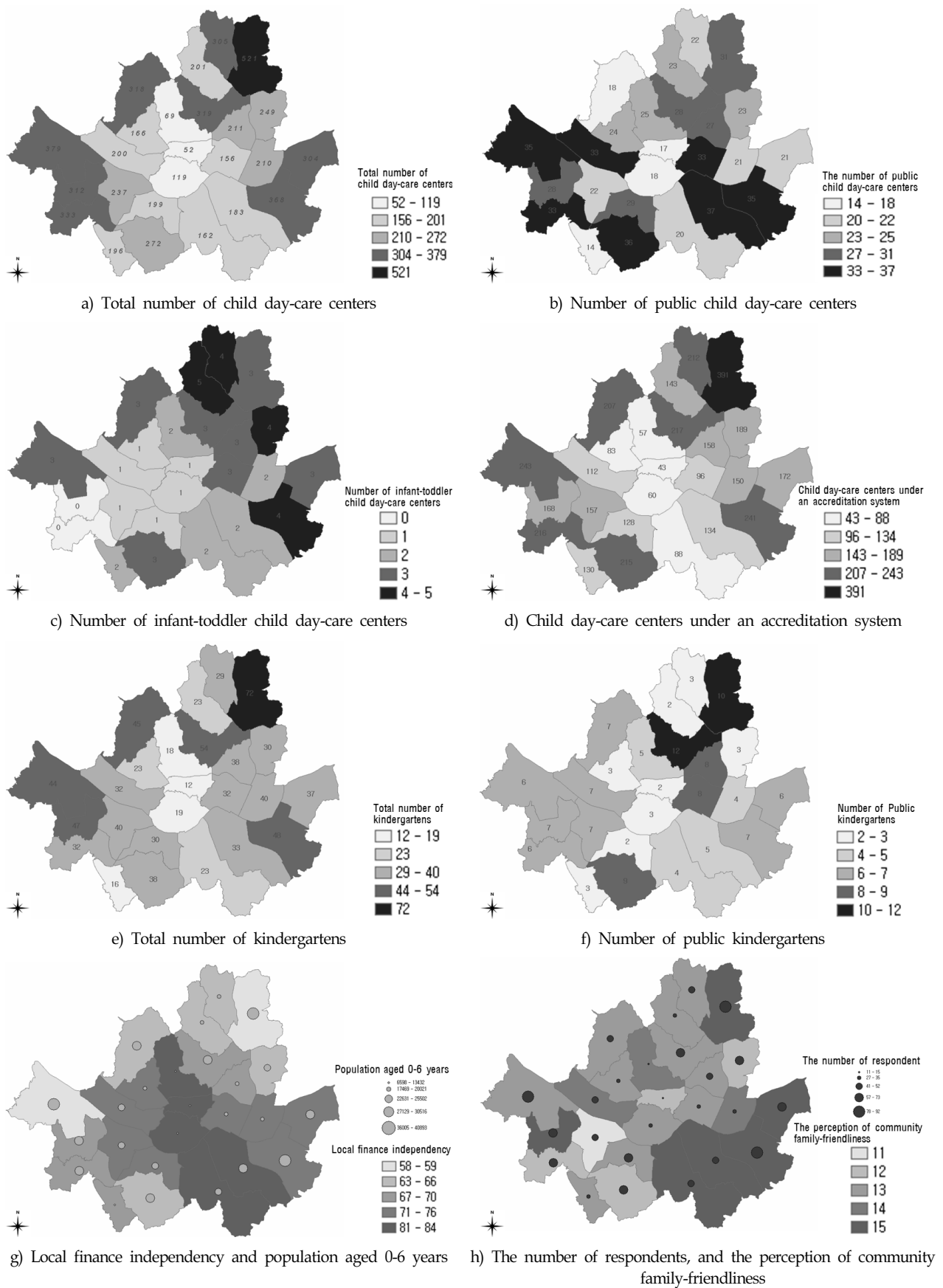


Figure 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Community Level Variables and Respondents

Table 4. The Effects of Gu o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Categories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Co-eff.	S.E.	a Ratio of variance components
Fixed effect	$\chi^2_{00}$	13.33***	.21	
	Variance (between communities)	.99		12.50%
	Variance (within communities)	6.93		87.50%
Random effect	$\chi^2$		224.02***	
	df		24	
	P-value		.000	

\*\*\* $p < .001$

<Table 4>를 보면  $\chi^2$ 값이 224.02로 나왔고, 이 무제약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p < .001$ ). 즉, 지역사회 간 가족친화성 인식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사회 간의 분산 구성 비율과 지역사회 내 분산의 구성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을 설명하는 총 분산 중에서 12.5%가 지역사회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개인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분산 차이는 87.5%였다.

정리하자면 지역사회에 따라 가족친화성 인식 평균에 차이가 있고, 지역사회 간 분산 구성 비율 12.5%도 이희연, 노승철(2012)이 제시한 기준 5% 보다 높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무제약모형 결과에 근거해 1수준과 2수준 설명 변수를 차례로 포함시키는 상향식 임의절편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따라 영유아를 둔 부모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한 임의절편모형 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의 model 1은 <Table 4>에서 이미 설명했던 무제약모형 분석결과이고, 모형2는 1수준의 개인변수만 설명변수로 포함시켰을 때의 결과이다. model 3이 1수준 개인변수와 2수준의 지역사회 변수를 모두 포함시켜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 최종모형이다. model 2와 model 3에서는 고정효과를 추정해 각 설명변수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며 그 유의도가 어떠한지 분석할 수 있다. 무선효과에 대한 분산 성분 분석을 통해 각 모형에서 추가로 들어간 변수가 분산 비율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도 알 수 있다.

<Table 5> model 2에 제시된 결과를 통해 개인수준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살펴보겠

다. 모형에 포함된 개인수준 변수들 중에서 연령만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개인수준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낮아졌다( $p < .05$ ). 성별,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2에서 개인수준 변수의 투입으로 개인수준의 분산은 model 1의 6.96에서 6.93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변수들은 개인수준의 전체분산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2% 만을 설명하였다. model 2에 투입된 개인수준 변수들은 지역사회 수준 분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연구들이 포함시키는 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 변수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대해서는 좋은 설명 변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5>의 model 3에 제시된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 전체 어린이집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재정자주도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는 전체 어린이집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 평가인증 어린이집수로 드러났다.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첫 째, 다른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전체 어린이집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아졌다( $p < .001$ ). 둘째, 다른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영아전담 어린이집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아졌다( $p < .05$ ). 셋째, 다른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낮아졌다( $p < .05$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수, 전체 유치원수, 공립 유치원수의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차이가 없었다.

Table 5. The Effects of Individual, Child-care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Indicator o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Level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Intercept	13.33***	.21	13.21***	.22	13.20***	.13
Individual	Gender <sup>1)</sup>						
	Female			.14	.12	.13	.30
	Age			-.05*	.02	-.05*	.02
	Educational level <sup>2)</sup>						
	Under College Graduate			.30	.26	.31	.26
	Post College			.08	.17	.07	.17
	Monthly Household Inc. (log)			.39	.30	.39	.30
Community	Total number of child day-care centers(Z)					2.96***	.13
	Number of public child day-care centers					.04	.03
	Number of infant-toddler child day-care centers					.33*	.15
	Child day-care centers under an accreditation system					-.02*	.01
	Total number of kindergartens					.01	.01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s					-.03	.07
	Local finance independency					.17***	.03
	Population aged 0-6 years					.00	.00
Variance	Individual level	6.93		6.88		6.89	
	Community level	.99***		.99***		.50***	
Explained accumulative variance	Individual level			.72%		.58%	
	Community level			.00%		49.49%	

Note) 1) The reference group is Male. 2) The reference group College Graduate.

\* $p < .05$ , \*\*\* $p < .001$

통제변수 중에서는 재정자주도, 연령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 재정자주도가 클수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도 높아졌다( $p < .001$ ).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은 낮아졌다( $p < .05$ ). 0~6세 인구수, 성별, 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의 model 3에 투입된 지역사회수준 변수와 개인수준 변수들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 지역사회수준 변수의 투입으로 지역사회수준의 분산은 모형1의 .99에서 .50으로 감소하였다. 이 변수들은 지역사회수준의 전체분산 중 49.49%를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model 2의 지역사회수준에서 설명된 분산량 .0%에 비해 크게 증가

한 것이기도 하여, model 3에 추가된 지역사회수준 변수들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대한 분산을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model 3에 포함된 개인수준 변수들로 인해 개인수준의 분산은 model 2의 6.88에서 6.89로 미세하게 늘었다. 그렇지만 이 변수들은 개인수준의 전체 분산 중 여전히 .58%만을 설명해 주었다.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서울시 구 별로 보육서비스 인프라 분포가 어떠한지, 지역사회에 갖추어진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 1,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설문조사 자료를 서울시 구 별 통계 자료와 병합해 위계선형모형 중 임의절편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임의절편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보면, 먼저 전체 어린이집수가 많을수록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느끼고 있어 우리 정부의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대 정책 방향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다른 효과성을 나타낸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관해서라면 다른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비해 효과성이 높은 인프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Lee(2009)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사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문화시설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의 연구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수가 지역수준 출산율과 무관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수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주장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 당위적으로 주장하기에 앞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효과성부터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설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

전체 어린이집수와 영아전담 어린이집수가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평가인증 어린이집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부적인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Jeong(2009)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들어 본 적이 있고, 평가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자녀가 다니는 기관을 선택할 때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라서' 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비교한 Kim and Kim(2010)의 연구에서도 기준시설(영유아보육법상 시설기준 충족시설)과 평가인증 시설이 일부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날 뿐 운영관리, 인력관리, 교육훈련 및 평가, 건강·영양·안전관리·부모참여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평가인증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은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제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평가인증으로 인한 부담과 업무과중, 평가항목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로인해 오히려 아동을 소홀하게 돌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Jeong, 2009; Lim, 2009; Choi, 2012). 서울시 구 별 평가인증시설비율(전체 어린이집수에서 차지하는 평가인증시설 비중)을 봐도 종로구와 중구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80%가 넘는 시설들이 평가인증시설이지만, 서대문구,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는 약 절반만 평가인증제에 참여하고 있어 구 별로 평가인증제 참여율에 큰 편차가 나타났다. 어떤 지역사회 요인과 시설요인이 평가인증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지 후속연구에서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평가인증제도를 무조건 확대하기 보다는 평가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보육서비스 인프라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수를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수, 영아전담 어린이집수, 평가인증 어린이집수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 유치원수와 공립 유치원수의 인프라라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이 영유아 모두 이용 가능한 것에 비해 유치원은 이용대상이 유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어 연구대상을 유아기 가정으로 더욱 좁힌다면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만 본다면,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유치원 보다 효과적인 보육서비스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학력, 성별, 월 평균 가구소득의 개인 특성에 무관하게 유사한 수준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개인 특성 중에서는 연령만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생애과정 관점을 강조한 Swisher, Sweet, and Moen (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이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특성과 관련성과 낮고,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인프라와만 관련성이 높은 것인지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수준의 영향요인을 찾아 주길 기대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지역과 연구대상의 가족생활주기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시로 연구지역을 한정시켰기 때문에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올지 검증이 필요하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다보니 조사대상자가 고소득·고학력으로 과대표집 되었고, 이 연구결과를 확대시켜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연구 제한점은 다양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 중 보육서비스 인프라라는 일부만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김혜영 등(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

요소를 행정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자연환경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보육서비스 인프라는 서비스 인프라의 일부분일 뿐이다. 위계선형 모형 분석에서도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의 분산 중 지역사회수준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친화적 구성요소 중에서 과연 어떤 구성요소가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떤 구성요소가 더 큰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별개의 정책으로 여겨졌던 보육정책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을 연결하여 객관적인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정책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세분화하여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보육정책은 출산율을 충분히 높이지는 못하였지만,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동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는 환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서울시가 2012년 9월 14일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의 첫 번째 지원 대상 10개 단체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돌봄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지원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 완성도 높은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원해주길 기대한다.

REFERENCES

김남신(2005). **GIS실습 -아크뷰를 활용한 지도 제작과 공간 분석**. 개정판. 파주: 한울.  
 김두섭 · 강남준(2008).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개정판. 경기도 파주: 나남.  
 김혜영 · 홍승아 · 이택연 · 선보영 · 진미정 · 홍성만(200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1).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추진현황.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서문희 · 김은설 · 최진 · 안재진 · 최혜선 · 김유경 · 조애저 (2009a). 전국보육실태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 안재진 · 최혜선 · 소마 나오코 · 안진(2009b).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009-05.  
 안우환(2004). **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통계**.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이삼식 · 최효진 · 정혜은(2010).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30-15.  
 이재열 등(2005).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희연 · 노승철(2012).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경기도 파주: 법문사.  
 진미정(2010).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의 해외 사례 연구. 여성가족부. 2010-14.  
 홍승아 · 김혜영 · 류연규(2007).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방안 연구 -직장 · 지역사회 의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 김혜영 · 류연규 · 相馬直直(상마직직) · 조순주 · 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arksdale, L, C., Ottley, G, P., Stepgens, R., Gebrelassie, T., Fua, I., Azur, M., & Walrath-Greene, C.(2012). System-level change in cultural and linguistic competence(CLC): How changes in CLC are related to service experience outcomes in systems of care. *Am J Community Psychol.* 49, 483-493. DOI 10.1007/s10464-011-9442-1  
 Cha, S. & Lee, H.(2011). A study on preferences for apartment interiors, exteriors,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for a family 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Focused on apartment dwellers in Daejeon city-.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2), 45-62.  
 Chaskin, J, R.(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71(4), 523-547.  
 Choi, Y.(2012). Nursery facilities employees' perceptions of re-certification and job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2(1), 19-57.  
 Claudia J. C., Jennings, Z, M., & Chan, T.(2012). How big is my neighborhood?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on perceptions of neighborhood scale. *Am J Community Psychol*, Published online 11, DOI 10.1007/s10464-012-9550-6  
 Finello, M, K., & Poulsen, K, M.(2012). Unique system of care issues and challenges in serving children under age 3 and their families. *AM J Community Psychol.* 49, 417-429.  
 Francis, G., & Castles, G, F.(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Garcia, A., Aisenberg, E., & Harachi, T.(2012). Pathways to service inequalities among Latinos in the child welfare syste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1060-1071.
- Gelman, A., & Hill, J.(2007). *Data analysis using regression and multilevel/hierarchical models*.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dfrey, B, E., Osher, D., Williams, D, L., Wolf, S., Berg, J, K., Torrote, C., Spier, E., & Aber, L, J.(2012). Cross-national measurement of school learning environment: Creating indicators for evaluating UNICEF's child friendly schools initiativ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546-557.
- Jeong, Y.(2009). A study of the parent's perceptions of evaluative accreditation system: Focusing on certified facilit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13(4), 311-332.
- Jun, S.(2011).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childcare services: A study targeting childcare services for children below two year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7(2), 61-85.
- Jung, M. & Cho, B.(2011). A multi-level study of contextual effects of community capacity on health status among Seoul residents: focused on social qua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4), 1-14.
- Kim, S. & Lee, S.(2010). A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the national pilot project to make family-friendly communit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4), 101-126.
- Kim, Y. & Kim, H.(2010). Study on the comparison of child care service index based on each type for qualitative management of care service centers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2), 103-125.
- Lee, M.(2009).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childcare service subjects: Focused on Seoul.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5), 153-174.
- Leventhal, T., & Brooks-Gunn, J.(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 Lim, M.(2009). Examination of the postscript of the day care center passed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학교교육연구*, 7(2), 77-93.
- Noh, S. & Chin, M.(2012). The influence of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on 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among parents with preschool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3), 135-149.
- Park, K. & Kang, H.(2009). A study on parent satisfaction level with accredited daycare centers. *경주연구*, 18(1), 44-71.
- Park, J.(2010).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life environment factors on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married men/women with children : Focused on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mily support facility satisfaction, family support program satisfaction, nurture and educ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nformation accessibil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5), 53-66.
- Park, S., Lee, W., Kim, H., & Ryu, J.(2009).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가로 연구. *Family and Culture*, 21(1), 151-174.
- Raudenbush, S, W., & Bryk, A, S.(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Second Edi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Roberts, E, G.(2001). New Jersey Local Government Benefits Practices Survey.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1, 284-307.
- Roberts, E, G., Gianakis, A, J., McCue, C., & Wang, X.(2004). Traditional and Family-Friendly Benefits Practices in Local Governments: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Public Personnel Management*, 33(3), 307-330.
- Sampson, R, J.(2012). *Great American city. Chicago and the enduring neighborhood effect*.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ngh, N, N., Curtis, J, W., Wechsler, A, H., Ellis, R, C., & Cohen, R.(1997). Family Friendliness of Community-Based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Their Families: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5(2), 82-92.
- Sweet, S., Swisher, R., & Moen, P.(2005). Selecting and



Assess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daptive Strategies of Middle-Class, Dual-Earner Couples. *Family Relations*, 54(5), 596-606.

Swisher, R., Sweet, S., & Moen, P.(2004).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nd Its Life Course Fit for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281-292.

Timperio, A., Ball, K., Salmon, J., Roberts, R., Giles-Corti, B, M., Simmons, D., Baur, A, L., Crawford, D. (2006). Personal, Family, Social,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Active Commuting to School.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0(1), 45-51.

Yoo, J. & Chin, M.(2012). Perception of community family-friendliness amo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i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6), 39-51.

국가통계포털 KOSIS. 2011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index/index.jsp>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http://seoul.childcare.org.kr>

SGIS통계지리서비스. <http://sgis.kostat.go.kr>

NEWS1(2012). [연표]서울시 보육정책. 2012. 10. 28.

<http://news1.kr/articles/870371>

접수 일 : 2013년 02월 13일

심사 일 : 2013년 03월 31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5월 27일